

투데이 칼럼

농부의 삶, 그리고 내 고향

5 월은 가정의 달이요, 사람이 넘치는 달이다. 사랑하는 처와 자녀, 부모형제, 일가친척 등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보고 싶은 계절이다. 그런데,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고향 장수를 갈 때면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을 가린다. 장수하면 첫째 부모님 생각, 둘째 우리집안을 일으킨 형과 형제 생각 먼저 떠오른 것이 사실인데, 작년 추석연휴부터 형께서 위암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하다가 집에서 휴양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 기도를 통해 쾌유를 희망하고 있는 중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장수 친척면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워 걱정 없는 집안을 이루시기 위해 삼급학교도, 진학도 않으며 잠시도 고향을 떠나 살아 본 적이 없었고, 마음 놓고 일손을 멈추고 여행을 다니지도 못하면서, 농사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

온 형이 청천벽력과 같은 병으로 누워 계시니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앞으로 30년 이상 좋은 세상에서 인생을 보내셔야 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앞을 가린다. 형의 인내와 욕심으로 좋은 의술로 몇 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공정의 마음을 먹는다. 소박한 형의 꿈은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병은 너무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인생은 태어나 언젠가는 돌아가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나 빠르고 야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속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매일 매일 참참한 마음으로 이 동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필자는 가끔 동네 앞을 지나면서도 부모님, 형제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전화하여 "형! 어디에" 하면 "나 비닐하우스여" 하면서 농가소득에 평생 보낸 내 사랑하는 형에게 안부를 전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니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 형이 병원에 누워있고 활동하기 좋아

하던 형이 집에서 누워있기에 나는 즐겁지 않고 왜 매일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야 하는지... 또한, 내 고향 장수는 총절의 고향이요, 청정지역의 관광명소가 있는 고장이며 개인농가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지만 형과 같이 부모형제를 사랑하고 장수를 사랑하는 가난과 싸워 이겨낸 장수 토박이 군민들의 노력에서 더욱 살기 좋은 내 고향이 되었다고 자긍심을 가져보며 형을 존경한다.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부터 농민들의 의식개혁으로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듯이 장수 지킴이인 형과 같은 농민들이 있었기에 농가소득이 높은 오늘의 장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세월 고생 많이 하신 형의 세대들이 의료, 복지혜택이 좋아져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한다.

사설

탄소산업 고도화를 기대한다

전북도가 최근에 탄소산업과 관련해 진일보 된 소식을 전해주었다. 산업부가 공모한 '탄소복합체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정말이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탄소산업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KS, KC 등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체들도 양질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최근 들어서 전북 지역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드물었는데 이번 기회에 희망을 말해야겠다. 오랜 구호 그대로 탄소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전북도 관계자들의 어깨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탄소산업의 외연 확대에 이익 창출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지난날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그래서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북도와 비교해 분발해야 할 때이다. 경상북도가 탄소산업에 뛰어들어 경쟁자의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도 경북이 후발주자이므로 정부 부처의 지원 명분에 있어서는 이쪽보다 딸린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우위를 자신하는 이유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탄소산업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다.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값싸고 연구 개발을 말하는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을 위해서 산학연 산자가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터이다. 전북도는 지난 수년간 탄소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한껏 키워 주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동안 공표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야겠다. 전북도가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제안한 국비 규모가 5천 2백억원을 제안했던 것도 다시 생각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욱 애써주기를 바란다.

독자제언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최근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두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이내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한 명은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정체구간 및 차량이 많은 곳의 교차로 근무를 할 때면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바로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다. 교차로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을 봤으면서도,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저점근무를 하고 있는 데도 무단횡단 하는 곳과 멀리 있다. 이 이유로 자연스레 건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무단횡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포함)은 범칙금 30,000원이며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은 20,000원이다. 단속을 하기 이전에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쉽게 눈에 안 들어와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횡단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기를 당부한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를 아십니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성폭력, 유기·방임 등 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로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활용해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이 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목격하면 바로 112나 1366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기업유치 작업 활발해야겠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남독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어왔다. 그러려면 불철인 지금 유치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유치된 기업에게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도 줄 생각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이쪽으로 데려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기업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 수년간 보여준 기업 유치 성적표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으니 말이다.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도내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환경도 열악하다. 그런데 이유를 들라면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신규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는 보고가 오래 전에 있었지만 공공유치 효과라는 게 기대치만 높혔을 뿐, 실속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는 그 보고하는 바가 확실해야겠다. 전북도는 양해 각서를 교환한 기업들이 많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 전북도가 지난 날에 보고했던

유치 실적을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열른 생각할 때 그것들은 대단한 성과였다. 7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 투자될 예정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4천 명을 상회할 거라고 보고 했었으니 말이다. 그게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해도 다시 생각해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 얼마 후에 나온 투자 규모가 실상을 밝혀주었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후속 기사가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지적했던 것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양해 각서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돈의 액수라는 것을 말이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다. 전북도가 기업 유치작업을 활발하게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업 유치가 잘 되면 일자리 창출도 잘 되고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기업 유치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달라는 당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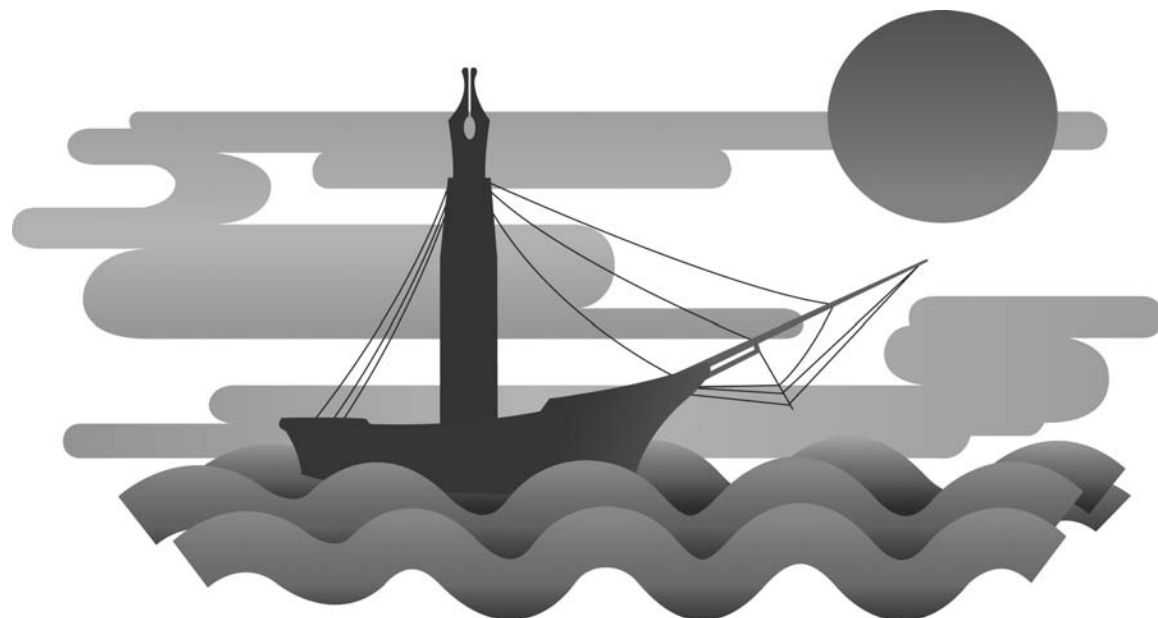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